

감사성찬례 1형식 (기도서 244-272쪽)

✠ 기도서 ♪ 성가

※ 입당 타종시 모두 일어섭니다.
※ 사목단이 제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모두 앉아 대연도를 드립니다.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영등포성당

개회예식

대연도 (앉는다) 성가 90장 다함께
정심기도 (생략)
죄의고백 (생략)
기리에 (A곡) (선다).....✠ 246 / ♪ 68다함께

말씀의 전례

본기도 집전자
자애로우신 하느님,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시며, 통회하는 사람들
을 기쁘게 받아주시나이다. 비오니, 주님께 돌아온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기쁨으로 채
워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 독서 (앉는다) 여호 5:9-12 말은이
시 편 시편 32편 다함께



- 복되 - |아라, 거역한 죄|용서|받고
○ 죄의 허물 벗|겨진|이 - 여, -
- ◎ 복되어라, 주께서 잘못을 묻지|아니|하시고
○ 그 마음에 거짓이|없는|이 - 여, -
- 나, 주님께 아뢰지|않으려|했더니
○ 온종일 신음 속에 빠만|녹아|나 - 고 -
- ◎ 밤낮으로 당신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 이 몸은 여름 가뭄에 풀 시들듯 진액이 다 말라|버렸
|습 - 니다. -
- 그리하여 당신께 내 죄를|고백|하고
○ 내 잘못을 감추지|않았|습 - 니다. -
- ◎ “주여, 내 죄를 고백합니다”하고|아뢰|었더니,
○ 내 잘못 내 죄를 용서|하셨|습 - 니다. -
- 영광 -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 - 멘 -

2 독서 (앉는다) 2고린 5:16-21 말은이
복음서 (선다) 루가 15:1-3, 11하-32 말은이
설교 (앉는다) 말은이
사도신경 (선다) ✠ 250 다함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생략)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선다) ✠ 287 다함께
봉헌성가 421장 다함께
예물기도 ✠ 287 말은이
성찬기도 (1양식) ✠ 257
거룩하시다 (A곡) ✠ 257 / ♪ 71 다함께
마침영광송 ♪ 64 다함께
주의기도 ✠ 269 / ♪ 65 다함께
성체나눔 ✠ 269 다함께
하느님의 어린양 (A곡) ✠ 270 / ♪ 72 다함께
영성체 (앉는다) ✠ 270
영성체 성가 413장 다함께
영성체 후 기도 (선다) 다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거룩한 십자가를 공경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외에는 아무 것도 자
랑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이다. 아멘
광고 (앉는다) 말은이

파송예식

축복기도 ✠ 288 집전자
파송 ✠ 272 말은이
파송성가 (선다) 198장 다함께

	이번 주일 성찬례 (3월 27일)		다음 주일 성찬례 (4월 3일)	
	9시	11시	9시	11시
집 전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주낙현 신부	주낙현 신부
설 교	주낙현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신부	주낙현 신부
1독서	서정민	전병도	서정민	이정숙
2독서	정상임	김경아	우영현	이복련
대 도	-	-	-	-
십자가	박해웅	이용해	윤용환	차기성
다음 주일 4월 3일	전례독서 이사 43:16-21 시편 126 필립 3:4하-14 요한 12:1-8 성 가 대연도 봉헌 506장 영성체 512장 파송 483 장			
교 회 청 소	4월 2일 모니카회4조 김난희, 심순덕, 윤영옥, 이태훈, 정은숙, 주창남		4월 9일 G.F.S 1조 정명옥 고아람 김민숙 문해화 오현희 곽은영 이윤나	



성공회 영등포 성당

St. Christopher's Anglican Church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 02-2671-6290, 2633-8877(팩스) © stchris@anglican.k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2022년 3월 27일 사순 4주일(장미주일) · 다해 · 장미색

제57-13호

돌아온 탕자 이야기 — 나는 누구의 그림자인가?

(루가 15:1~3, 11하~32)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에는 종종 함정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언제나 읽어도 감동과 아름다움이 넘치지만, 자칫 그 주제와 가르침에 너무 익숙해서 뻔한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욕심 많은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가 빈털털이가 된 뒤에야,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는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그를 환대합니다. 우리는 종종 탕자의 삶을 살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늘 용서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용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야기의 끝일까요? 등장인물 세 사람의 삶에 드리운 그늘이 던지는 새로운 질문은 무엇일까요? 작은아들은 아버지를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는 말은 아버지의 죽음을 염두에 둔 요구입니다. 아들 눈에는 가장 친밀한 부모형제는 보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재산만 보입니다. 곁에 있는 이들에게 눈 감는 사람은 신앙이 들어서지 않습니다. 재산과 성공만 보는 사람은 절제를 잃기 쉽습니다. 결국, 그 자신의 실패와 생존의 위협 속에서야 깨닫고 결심합니다. 돌아가자! 그러나 그 다짐은 여전히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보려는 마지막 이기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과 성과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문과 전통을 자신이 지켰다면 그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위를 요구합니다. 자기 경험과 세월로만 판단하려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속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

에 나온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도 역시 집에 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인정해달라는 큰아들의 분노는 작은아들의 이기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환대하기는커녕, 스스로 자신을 내쫓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아버지는 버림받고 무기력합니다. 작은아들에게서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큰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의 재산은 이미 큰아들의 것이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돌아온 자식에게 옷을 해 입히는 일 말고는 없습니다. 그의 눈은 희미하고 얼굴은 세월의 주름에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껴안는 한 손은 연약하도록 가느다란데, 다른 한 손은 수고로운 노동의 세월에 뭉툭해졌습니다. 그에게는 잃은 아들을 품에 껴안을 힘과 마지막 잔치를 베풀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껴안는 품이 사랑과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 세 인물은 우리에게 어떤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나요? 작은아들은 자기 꿈만 바라보는 젊은 세대를 대표할까요? 큰아들은 스스로 신앙을 잘 지켜왔다는 연륜의 신앙인을 가리킬까요? 아버지는 우리 근현대사의 거친 질곡을 견뎌왔던 세대일까요? 달리 물어보면, 방탕한 생활에서 돌아온 작은아들의 모습에 비친 나는 누구인가요? 스스로 자기 집을 거부해버린 큰아들 기성세대와 나는 얼마나 다를까요? 마지막 사랑의 힘으로 환대하는 늙고 병든 아버지의 모습은 거친 세월 속에서 고집 세고 인색해져버린 우리 자신에게 무슨 말을 건네는 것일까요?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관 할 사 제 주낙현 요셉 신부
보좌사제 구균하 요나로렌스 신부
신자회장 김중희 요셉
사제회장 차기성 안드레

교회위원 구정애 변금숙 서남철 신환중 이성식 이평환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원로위원 서세룡 유호애 송갑호 추형두 이충웅 이용해 박해웅 윤용환
보혈조력 박해웅 신환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해 이종한 차기성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고아람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경희 이난희 이광자마리아

■ 전례와 사목

1. 사순절기 전례 안내

- 평일성찬례 - 사순1주간부터 매일 오전 6시 30분 (성전) 정성을 다해 매일 성찬례를 봉헌해 주시고, 단체별로 지정된 요일은 꼭 함께 참여하여 주십시오.

- 월요일 - 교회위원회
- 화요일 - 나옴교회, 베드로회
- 수요일 - 모니카회, 안드레회
- 목요일 - G.F.S.
- 금요일 - 엑술타테회, 유빌라테회
- 토요일 - 교사회, 청년회, 성가대

- 우리 성당에서 먼 거리에 사시는 교우들은 가까운 성공회 성당에서 사순절 전례에 참여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지역 교회를 응원하고 돕는 좋은 길입니다.

■ 알림

1. 4월 교회위원회

2022년 4월 3일(다음 주일) 오후 12시 30분 성전에서

2. 봉헌서약서 봉헌

오늘 11시 성찬례에서 봉헌서약서를 봉헌하고 서약자들을 축복합니다. 봉헌서약은 연중 계속됩니다.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순절 신앙 훈련: 마음 - 집안 - 성당 청소

사순절을 전례와 기도로 보내는 것과 같이, 자신의 집과 더불어, 부활을 준비하면서 각 단체방의 정돈과 청소 일정을 마련하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성공회 성가책 판매

주일 성찬례와 전례 중에 사용할 개인 성가책을 판매합니다. 기도서와 같은 크기이며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 성가를 사용하고 전례 중에 찬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25% 할인 가격인 1만5천원에 한시 판매합니다(4월부터 정가 2만원 판매)

5. 사순절 기도서 판매

선교교육국에서 발간한 <말씀과 이콘과 묵주로 드리는 사순절 기도>로 사순절 기도 생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서와 이콘 카드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당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정가 3천원, 2권 5천원.

6. 제단 꽃 봉헌 요청

성당 로비에 마련된 신청표에 봉헌하시는 분의 성함과 내 용을 쓰시고 봉헌해 주십시오.

■ 활동단체 소식

♦ 어머니회 물품 판매

- 다시마 1kg(1박스) 1만7천원 - 참기름 1병 1만원
- 미역 1kg(1박스) 2만5천원 - 들기름 1병 1만1천원
- 엿기름 600g 4천원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김예담(27일) 성하준(29일) 윤용환 홍서아(30일) 고아랑 김한나(31일)

♦ 떡 봉헌

김민숙 테레사 교우가 아들(한승운 애녹)의 혼배를 축하해 주심에 감사하며 떡을 봉헌하셨습니다.

♦ 꽃 봉헌

최효운 프리스카 교우가 손녀 김한나의 생일을 축하하며 꽃을 봉헌하셨습니다.

■ 십일조 · 월정헌금 1,380,000원

구정애 김용학 박영수 송미경 송미정 신환중 이정희 이중한 장분순 정상임 정준희 차기성 최중주

■ 주정헌금 330,000원

김경찬 김삼홍 김요한 서정민 선병순 송미경 유희주 윤영옥 윤영자 윤옥랑 이정희 이성빈 정명옥 주애다 주창남 주창순 차기성 한부순

■ 감사헌금 493,000원

곽은영(모친생일3만) 김한나(생일5만) 윤옥랑(간강5만/시부 모별제기념5만) 사순 변금숙(5만) 서남철(3만) 송미경(5만) 신환중(3만) 윤영자(4천) 이중한(1만5천) 무명27명(13만4천)

■ 기타헌금(미사 예물 · 주일학교 · 학생회 등) 37,000원

외부지원 목적 헌금

■ 나눔의집 60,000원

주낙현신부 이순경 박영수 주창남 윤옥랑 윤용환

■ 예수사랑 김용학 윤옥랑 이순경 30,000원

■ 성공회대장학금 윤용환 10,000원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봉헌 안내

■ 십일조(월정헌금) 일반·감사 등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15

장미주일 (Laetare Sunday/ Rose Sunday)

전통적으로 사순 4주일과 대림 3주일을 ‘장미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장미 주일은 ‘기쁨주일(Laetare Sunday)’이라고도 하는데, 그레고리안 찬트 미사 입당송의 도입부 “Laetare Jerusalem(기뻐하라 예루살렘여)”에서 그 이름이 비롯되었습니다. ‘장미주일(Rose Sunday)’이라는 보다 대중적인 이름은 로마의 주교가 이 날을 축하하기 위해 사용될 장미를 그리스도교 군주들에게 보내던 관습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인해 장미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전통에 따라 이 날 제대를 장미와 함께 다양한 꽃들로 장식하며, 사제는 자색 제의 대신 장미색 제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색은 회개를, 장미색은 기쁨과 위로를 상징합니다.

사순 4주일은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의 절반을 지나는 시점입니다. 이날을 장미주일로 지키는 것은 기도, 절제, 자선의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잠시 긴장을 풀고 부활절의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남은 사순기간을 잘 지켜나가도록 격려하는 의도입니다.

사순절기의 초점은 우리의 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진정한 기쁨으로 맞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뒤따르는 믿음으로 지키는 사순절기입니다. 사순절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참 기쁨과 소망의 시간임을 장미주일은 되새겨주는 것입니다.

장미주일을 맞으며 사순절기 40일의 반환점을 돌면서 주어지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 장차 누릴 부활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사순절의 시작에 하느님과 약속하고 결단한 신앙의 다짐을 되새기고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해 주세요 †

■ 교회를 위하여

- ♦ 영등포 성당의 신앙 회복, 전례 회복, 교회 회복을 이루도록
- ♦ 지역 사회와 협력하도록
- ♦ 새교우를 환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 ♦ 코로나 19를 넘어 일상회복을 위하여
- ♦ 대선 이후 사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 ♦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 가정을 위하여

- ♦ 사순절기 동안 성무일도를 바치는 가정이 되도록
- ♦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위하여

■ 어려운 교우와 환자를 위하여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정상운 권영달 김경옥 이명길 윤길자 이현숙 채옥순 최중주 신희숙 신정자 유호애 김복근 민병화

■ 임 신 셋별 ■ 군복무 양승환 김예찬 ■ 유 학 이재성(독일)

■ 장지출장

박지혁 김슬기 윤상기 한지원(미국) 서한열(캐나다)